고흥 ‘우수 농수산물’ 독일 식탁 오른다

군, 베를린 유통업체와 500만달러 수출협약 체결
공영민 군수 “유럽 등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

고흥군이 독일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아시아 식재료 전문 유통업체인 모모고(momogo, 대표 이민철)와 500만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흥 농수산물의 독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장기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모모고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아시아 식재료 및 밀키트 유통 전문기업으로, 현지 소비자들이 아시아의 가정식을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전역에서 한식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식자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자, 조미김, 건나물, 쌀 등 고흥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독일에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협약으로 고흥군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지원하고,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유자 음료 등 주요 품목의 품질관리와 출하를 담당한다. 또 모모고는 독일 내 유통과 홍보를 총괄하며, 현지 소비자에게 고흥산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도 협약 과정에서 고흥 유자에 생강을 더한 신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독일에서는 고흥유자가 비타민이 풍부한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강차 역시 면역력 강화와 건강 음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아시아 식재료 전문 유통업체인 모모고(momogo, 대표 이민철)와 500만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두 원료를 결합한 제품을 시범 출시해 현지 반응을 살핀 뒤, 본격적인 판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협약과 함께 베를린 시내 주요 유통매장에서 판촉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유자에이드와 유자차를 중심으로 시식·시음 행사가 진행됐으며, 현지 SNS 홍보 및 온라인몰 연계 마케팅도 함께 추진돼 현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흥군 농수산물이 독일 현지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첫걸음이자, 우리 농어민들의 정성과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다”며 “체코와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시장까지 진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도 수출기업들이 유럽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일 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정인화 광양시장, 국회 방문

정인화 시장이 지역구 권향엽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내년 국비 확보·현안 추진 ‘동분서주’

광양항만 자동화·산업위기 선재대응지역 지정 등 건의

정인화 광양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시장은 최근 국회 방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향엽 의원을 비롯해서 조계원 의원(원내 부대표), 이정문 의원, 이언주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욱 의원, 안도걸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을 보면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98억원), 첨단 신소재 X 수소 융복합 스타트업파크 구축(247억원), 공립 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400억원), 미래 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220억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144억원), 광양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240억원), 광양항 3-2단계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7603억원),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정책건의),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정책건의) 등이다.

정 시장은 “미국 관세 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요인으로 광양시 철강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광양항-여수 율촌일반산단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 “광양항 항만배후권의 개발로 물동량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또는 면제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건의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청소년 꿈 담아 쿠키 구워요” 장흥군 관산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문화의집 대강당에서 관산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꿈을 굽는 쿠키 제과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이 쿠키만들기 체험을 통해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성취감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달 가족 들어온 구례, 생태관광지로 뜬다

수달생태공원에 암·수 입식…“지역관광 핵심 거점”

전남에서 유일한 수달생태공원인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천연기념물(제330호) 수달 암·수 두 마리가 처음으로 입식돼 생태관광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간전면 일원 10만4000㎡에 조성된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그동안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수달 입식 현상 허가를 완료하고 지난 9월 수달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민간운영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최근 수달 2마리를 입식시켰다.

수달은 지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는 동물로 몸길이는 65~110㎝이며 야행성으로 시각, 청각, 후각이 발달돼 있고 하천 내에서 7~15㎞에 달하는 세력권을 형성하며 가족끼리 생활한다.

또 생활은 주로 물가 바위 구멍, 나무뿌리 틈새 공간을 집으로 활용하면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지만 양서류, 갑각류, 조류 등도 잡아 먹는다.

이번에 입식한 수달 두 마리는 암컷은 2023년생, 수컷은 2025년생으로 강원도 화천군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수달연구센터(한성용 박사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입식이 이뤄졌다.

군은 수달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두 마리를 시작으로 내년 3~4월 추가로 두 마리를 더 입식시켜 조기에 증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달 두 마리가 처음으로 입식됨에 따라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트리타워전망대, 카페수달, 사계절 꽃정원,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1500여그루의 홍매화를 비롯해 수선화, 백일홍 등 10여종의 계절꽃이 식재돼 있어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수달생태공원은 지난 2007년 개관된 전남도가 운영하는 섬진강어류생태관과 나란히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이 생태관광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현재 수달생태공원을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오는 2028년부터는 유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달 입식을 통해 공원의 상징성과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며 “전문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공원이 지역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순천, 주민자치 모델 선진화 ‘주목’

타 지자체 벤치마킹…5개 지역 100여명 방문

순천시의 주민자치 모델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순천시는 최근 저전동 저전나눔터에서 영암군과 광양시 등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순천형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 선도 도시로 평가받는 순천시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올해 5개 읍·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광양시는 2026년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장성욱 덕연동 주민자치회장의 우수사례 특강을 듣고, 저전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민거점시설을 방문했다.

또 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의제발굴,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등 ‘순천형 주민자치’의 구체적 운영사례를 청취했다.

특히 시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시작된 발전과정과 주민총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예산 운용의 투명성, 주민 참여문화 확산 등에 대해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다”고 평가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장흥,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이벤트 운영

기부자 550명 추첨 쿠폰 증정

장흥군은 12월 15일까지 ‘사랑 나누고, 혜택 더하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추진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기부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간 내 장흥군에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만원권 50명, 5000원권 500명으로 기부자에게는 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작은 기부가 지역 발전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부동산 검인·실거래 신고 ‘관할 구분 없이’ 처리

여수시, 등기소 통합 운영

여수시는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눠 처리해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거나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일자로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통합돼 웅천동 신청사에서 등기 업무가 일원화되는 변화에 맞춘 것으로,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부동산 실거래 방문 신고 업무도 통합 접수 체계로 전환해 민원 편의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방문 신고 건은 양 청사 어디서든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고, 해제·정정 신고, 분양권·전매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래 신고 등 업무는 기존처럼 관할 지역 구분을 유지해 처리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